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농업인 군비 직불금 등 82억 7000만원 지원

부안군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민생 안전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에 쌀직불제 군비 직불금 등 82억 7000만원을 농업인 6600호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쌀직불제 군비 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과 부안군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군에 거주하고 1만 308ha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6144호에서 73억 4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부안 쌀 천년의 숨씨는 원료곡 재배면적 1099ha의 농가 511호에서 생산장려금으로 6억 9000만원, 단백질 검사 인센티브 1억 9000만원 등 총 8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안 쌀 천년의 숨씨는 원료곡을 가공하는 부안농협, 계화농협, 동진협동, 라이스프라이 등 4개 RPC에도 포장지 제작비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입주인 안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5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공동주택 단지다. 건물도색,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용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의 정비할 수 있다.

2025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8개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월3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갖춰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 박차

귀리·밀·콩·쌀 등 활용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참여 업체 31일까지 접수

정읍시는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농촌진흥청 주관 공모사업인 이 사업은 귀리, 밀, 콩, 쌀 등 정읍의 특산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특산자원을 가공하거나 가공을 계획 중인 개인 및 단체다. 선정된 사업장은 가공시설 품질향상과 융복합 상품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되며 개소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총 11개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지원 분야는 △가공시설 품질향상(4개소) △융복합 상품화(7개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와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공 가능성,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헬시푸드 트렌드에 부합하는 융복합 상품 개발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상품 개발에 중점을 뒀 정읍이 헬시푸드 시장의 중심지

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아이디어 상품화 모델 육성사업으로 3개소를 지원해 4종의 융복합 상품을 개발했으며 반가공 사업장 생산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2개소에서 2종의 반가공 상품을 출시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 특산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정읍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며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정읍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생고을시장,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 인근)을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처로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구역 승인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으로 온누리가맹 대상점이 258개소 추가된다. 시는 신규 가맹대상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 가능한 점포에도 적극 홍보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층 확보를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카드 수수료가 기존 0.5%~1.5%에서 0.25%~1.25%로 낮아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까지 디지털(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했으며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15%를 주차별 최대 2만원, 최대 8만원 한도로 환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수 시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맹점으로 등록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구역 확대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축산농가 위한 전동손수레 지원

정읍시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사육업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손수레 100대를 지원한다.

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운반 전동손수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동손수레는 충전식으로 설계돼 무거운 사료를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오르막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 단가는 60만원이다.

이 중 30만원은 정읍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30만원은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00대를 지원하는데 고령 축산인, 장애 축산인, 여성 축산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화수 시장은 “전동손수레 지원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 감시 돌입

정읍시가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시민과 귀향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시는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를 특별 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폐수 무단방류,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감시 지역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공장 밀집 지역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이다. 이 기간에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설 연휴 전에는 취약업소·지역 중심으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오염우심지역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과 함께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도 운영된다.

특히 도축·육류가공 및 식품가공업체와 폐수 위탁업체 등 폐수 다량 배출업소, 사료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설 연휴 동안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과 귀향객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 대장정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 아산면·무장면 시작… 2월4일까지 14개 읍·면 순회 열린 군정 실현

심덕섭 고창군수가 15일 아산면과 무장면을 시작으로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 대장정에 나섰다.

심덕섭 군수는 15일 아산면(오전)과 무장면(오후)에서 2025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열었다.

심 군수는 이번 나눔대화를 통해 올해 슬로강인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의 의미를 설명하고, 4대 추진방향(서민경제 활성화, 미래첨단산업 육성, 세계유산의 특별한 활용,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군민과 함께 공유한다.

읍·면 방문인 만큼 그간 추진한 공약, 역점사업들의 현안과제에 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다. 14개 읍·면 순회 나눔대화에선 군정계획 보고, 활력 군민상 시상, 군정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군정 발전방향과 정책제시, 행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고 심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심 군수는 정책 추진 절차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군민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약속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보건소-부안군치과의사회, 노인의치 사업 협약 체결

부안군보건소는 15일 노인의치(틀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안군 치과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 내용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감경대상자의 의치 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의치 시술 및 장착, 1년간 무료 사후관리 등이다.

노인의치 지원 신청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 하거나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



하며 협약된 관내 12개 치과의원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받을 수 있

다.

다만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경우 또는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시 틀니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구강보건실 ☎ 063580-3818(381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